

한·일·중 연수기관 간 지식재산 교육협력 확대한다!

- 특허청, 「한·일·중 및 한·중 지식재산연수기관장 회의」 참석(11.14~15) -
- 한·일·중 간 지식재산 교육분야 협력 강화 및 한·중 간 심화협력 업무협약(MOU) 체결 -

특허청(청장 이인실)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.14.(화)~15.(수) 일본 도쿄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「한·일·중 및 한·중 지식재산연수기관장 회의*」에 참석해 3국간 지재권 교육 분야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
*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(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, IIPTI), 일본 공업소유권 정보·연수관(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, INPT), 중국 지식재산 배훈중심(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) 기관장 및 실무진 참석

15일 10시(현지시간) 개최된 한·일·중 지식재산연수기관장 회의는 한국·일본·중국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는 연수기관장들이 3국간 지재권 교육 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.

회의에서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의 85%를 차지하는 3국이 지재권 교육 분야 협력의 필요성에 동감했고 ▲ 최신 지재권 교육정책 공유 ▲ 3국간 심사관 교류 활성화 ▲ 상호진출기업 대상 교육 확대 ▲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을 위한 기반 공유 등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.

14일 10시(현지시간) 열린 한·중 지식재산연수기관장 회의에서 양 기관은 상호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지식재산 교육·훈련 분야의 협력 강화 ▲ 상호 국가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호혜적 교육협력 ▲ 인적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
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“3국간 지재권 협력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”며 “앞으로 동북아 및 세계 지식재산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	책임자	과 장	이현동 (042-601-4350)
		담당자	사무관	정경희 (042-601-4365)



사진 :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(왼쪽에서 3번째)이 11월 15일 10시(현지 시간) 일본 도쿄 공업소유권연수원에서 한·일·중 지식재산연수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쑤웨이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 원장(왼쪽에서 1번째) 혼조 료타로 일본 공업소유권정보·연수관장(왼쪽에서 2번째)



사진 :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(우측)이 11월 14일 일본 도쿄 프린스 호텔에서 쑨웨이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 원장(좌측)과 지재권 교육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.